

미혼모 아들서 IT 황제로... 좌절·성공 교차 '롤러코스터 삶'

스티브 잡스 56년 일대기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좌절과 실패 등은 모두 죽을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혁신의 도구로 이용했던 글로벌 IT업계의 위대한 구루(스승.거장) 스티브 잡스. 그는 애플과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현란한 미사여구와 화려한 영상까지 활용해 '프레젠테이션(PT) 달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개인사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최고경영자(CEO)로 유명하다.

그러던 그가 2005년 미국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불우했던 어린 시절, 암투병, 좌절과 성공 등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놓아 화제가 됐다.

잡스는 1955년 2월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입양기관을 거쳐 폴라 클레라 잡스 부부로 입양됐다. 잡스의 생부 애플파타 존 잔달리와 생모 조앤 심슨은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났으나 심슨 가족이 잔달리가 시리아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반대해 미혼모인 상태로 잡스를 낳았다.

잡스는 학창시절 내내 '사고뭉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형스럽게도 입양 부모인 잡스 부부는 그를 사랑으로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설립자 스티브 잡스 연보

- 1955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혼모 일에서 태어나 1주일 후 입양
- 1976 캘리포니아주 살리코밸리에 팔로알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 창립
- 1984 매킨토시 128k 발표
- 1985~86 전문경영진과의 대립 끝에 애플에서 퇴진.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 인수
- 1997 경영난을 겪던 애플에 복귀. 구조조정 단행. 1998년 아이맥 출시
- 2001 세계 최다판매 휴대용 디지털 음악재생기 아이팟 출시
- 2003 온라인음악시장 아이튠즈 발표
- 2004 회장 겸 수석
- 2007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아이폰 출시
- 2009 간 이식수술, 호르몬 치료 지속
- 2010 태블릿PC 아이패드 발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최대 IT기업에 등극
- 2011. 8. 24 건강 상태로 CEO를 팀 쿡에서 물러두고 전직 사임
- 2011. 10. 5 향년 56세로 사망

잡스는 명문 리드대학에 입학했으나 6개월 만에 중퇴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당시 친구의 방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을 위해 콜라병을 반납해 5센트를 모았으며 한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7마일(11.3km)을 걸어가기도 했다.

잡스는 1976년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앨토스에 있는 입양부모의

집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한 후 이듬해 개인용PC 애플 II를 내놓아 성공을 맛보지만 30세 때인 1985년 자신이 영입한 CEO 존 스컬리와 이사회에 의해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컴퓨터 개발사 넥스트와 컴퓨터그래픽(CG) 영화사 픽사를 설립해 또다시 일어섰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애플로 복귀해 아이맥에 이어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애플을 세계 최대 IT업체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잡스는 이 같은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4년 회장직을 사임하고 수년을 한 뒤 2009년 간이식 수술까지 받는 등 치열하고 긴 투병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잡스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 배운 사체 교육이 이후 맥컴퓨터의 사체에 응용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애플에서 축출된 것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뀐 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그는 암선고를 받은 후 죽음에 직면한 후에도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신화를 일궈냈다.

그는 성공과 좌절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스탠퍼드대 연설 말미에 밝혔듯이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도전하면서(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치열한 삶을 살다 떠났다. /연합뉴스



6일 중국 상하이의 한 애플 스토어에서 한 시민이 스티브 잡스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 추모 물결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 그의 유산은 영원할 것”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숨졌다는 사실이 6일 공식발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IT업계의 선구자인 잡스의 사망소식에 추모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ico****'는 “잡스는 뛰어난 경영자이자 꿈을 창조하는 비저너리, 현실에 기반한 강력한 실행주의자, 최고의 아이폰이면서 동시에 사상과 개념을 전파하는 에반젤리스트였다. 이 시대 최고 거인의 명복을 빈다”는 트윗을 올렸다.

'iamsunghoo****'는 “인간의 완벽한 인생이란 이렇게 아닐까 싶다. 처음부터 끝, 바닥부터 정상까지 모두 경험한 시대의 아이폰”이라며 고인이 이룬 업적에 경의를 표했다.

학계 등 유명 인사와 IT업계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patriamea)에 “스티브 잡스 별세.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생각하며 그를 추모한다”라고 썼다.

안철수연구소 공식 트위터(Ahn-lab-man)는 속보를 전하며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있을 것이다. 울컥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애플 II·아이폰·아이패드... 세상을 바꾼 천재

잡스가 일군 위대한 업적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4번째 사파” 미술 평론가 모리스 트니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파로 이브의 사파, 뉴턴의 사파, 화가 폴 세잔의 사파를 꼽았으나 최근 애플의 로고인 ‘합일 베어’ 먹은 모양의 사파’를 네 번째 사파로 추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잡스와 그의 동시대는 애플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PC시대 개막-애플 II로 개인 컴퓨터 대중화=잡스는 1975년 최초의 소형 컴퓨터 '킷'이 등장하자 이를 완제품 개인용 컴퓨터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5세 연상의 천재 공학도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설득해 1976년 애플컴퓨터를 창업해 애플 I을 출시한 데 이어 이듬해 개인용 완제품 컴퓨터 '애플 II'를 내놓는다.

애플 II는 베이직색 외관에 컬러 그래픽이 가능한 세련된 외관에 모니터·키보드를 갖췄으며, 전문가뿐 아니라 개인시장을 겨냥한 첫 컴퓨터로 1970년대말부터 80년대초까지 초창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50%를 휩쓴다. 1993년까지 16년간 생산됐다.

잡스는 이어 1984년 매킨토시(1984년) 잡스가 제록스연구소를 방문했다가 본 그래픽 사용자환경(GUI)을 적용하고 마우스를 도입한 매킨토시 컴퓨터를 내놓는다. 매킨토시는 컴퓨터 사용환경에 일대 혁신을 불러온 제품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PC시대도 열어-아이폰·아이패드로 30년 PC시대 접어=애플이 2007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PC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으며, 2010년 초 아이패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포스트PC시대의 본격 출발을 일궈냈다.

잡스는 지난 6월 '아이클라우드'를 선보이는 자

리에서 “10년 전에는 PC가 디지털 생활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PC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혁신에도 영향-융합학문시대 앞당겨=잡스는 지난해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애플은 단순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아니다”면서 “애플을 돌보이게 하는 것은 인문학에서 가져온 인간성과 기술을 연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잡스와 애플제품은 인문학과 연계된 공학을 함께 연구하는 융합학문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가 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잡스는 광고와 마케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84년 슈퍼볼 경기 당시 방영된 매킨토시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리틀리 스콧이 연출한 이 광고는 20세기 최고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는 이 회사 슬로건은 반항적 젊은이 사이에 유행어가 됐다. /연합뉴스

IT업계 판도 변화

미국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5일(현지시간) 사망함에 따라 세계 IT(정보기술)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잡스는 애플의 전부”로 표현될 정도로 그가 차지하는 무게를 고려할 때 위상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기업의 혁신성 탄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삼성전자 등 국내 경쟁업체의 반격 움직임은 기세등등하다.

최근에는 4세대(4G) 이동통신인 통합이동통신(LTE) 신기술을 선보

'소송전' 삼성-애플 타협할 듯

이며 애플과 격차를 좁힌 상태다.

그러나 애플이 잡스 사망 이후 사태를 나름대로 준비해온 만큼 단기간에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잡스가 사망한 마당에 극단적인 같은 양측 모두에게 큰 손실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4S가 발표된 지 불과 15시간 만에 프랑크 파리

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IT업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3G 통신기술에 관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소송전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기적의 땅, 군산 새만금 하늘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에어쇼

2011 Gunsan Saemangeum Airshow

군산 새만금 에어쇼

2011. 10. 8(토) ~ 10. 9(일) 2일간
군산 비응항 다용도부지 및 비행장

· 주최 | 군산시 · 미공군8전투비행단 · 공군38전투비행전대

군산시 GUNSAN CITY
문의 063)450-6598 http://www.gsairshow.com

세계최대의 루미나리에 축제

La FANTASTICA LUCE SAEMANGEUM 2011

세계 최대의 LED · 최고의 3D루미나리에 · 인기 가수 박강성 등 콘서트 · 예술단 등 상설무대공연

2011 새만금 판타스틱가라 축제

기간: 2011년 10월 7일 ~ 10월 30일
장소: 군산시 새만금산업전시관 광장 등
주최: 군산시 / Culture City21 / (주)군장 AMC